

McAfee 장치-클라우드 간 DLP

통합된 데이터 보호

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핵심 비즈니스 응용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Microsoft Office 365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. 온-프레미스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일반적으로는 Office 365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, 클라우드 내 협업 및 공유를 제어하지 못합니다. 많은 조직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, 별도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으로 인해 정책,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응이 파편화됩니다. 이는 장치, 네트워크,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걸친 운영 비용 증가와 데이터 보호의 비일관성이라는 결과를 일으킵니다.

McAfee® 장치-클라우드 DLP는 업계의 선도적인 McAfee® Data Loss Prevention(McAfee DLP) 및 McAfee® MVISION Cloud 기술을 통합하여 엔드포인트,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에서 통일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합니다. 이러한 통합은 조직에 원활하고 통합된 데이터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,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손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.

파편화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의 비효율성

클라우드에서 DLP를 구현하려면 온-프레미스 컨텍스트에 대해 작성한 DLP 규칙을 클라우드에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. 온-프레미스 DLP 규칙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타사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협력이나 공유에 관한 컨텍스트 또한 부족했습니다. 이로 인해 장치와 네트워크의 데이터에서 이미 완료된 기존 작업을 복제하는 데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, 다른 DLP 엔진의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도

초래했습니다. 클라우드에서 협력 및 공유된 링크를 통한 데이터 손실은 온-프레미스 DLP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.

온-프레미스 DLP 및 클라우드 DLP를 쉽게 연결 및 동기화

McAfee® ePolicy Orchestrator®(McAfee ePo™)
소프트웨어는 장치-클라우드 간 DLP를 간편하게 구현할
수 있도록 해줍니다. MVISION Cloud와 McAfee ePo
소프트웨어가 호환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협력 및
공유에 관한 완전한 콘텍스트를 갖춘 채 어떠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이전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두 개의 솔루션 연결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할 정도로 쉽고, 1분 안에 완료됩니다.¹ 장치와 네트워크에 관해 McAfee ePo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DLP 규칙은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모든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래픽 및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

주요 이점

원활한 통합

- McAfee ePO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한 번만 분류하여 이 분류를 장치, 네트워크, 클라우드 컨텍스트에서 사용하십시오.
-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할 정도로 쉽게 온-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DLP 연결을 처리하고 1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.

일관된 데이터 손실 방지

- 공유된 정책 및 분류 엔진은 여러 환경에서 작동합니다.
- 둘 이상의 콘솔에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.

모든 사고 관리 및 보고에 대한 단일 보기

- 여러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앙에서 관리합니다.
- 사고 및 보고서를 보기 위해 콘솔을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.

McAfee에 문의













데이터 시트

적용할 수 있는 MVISION Cloud로 옮겨집니다. 데이터 분류는 엔드포인트 및 클라우드에서 일관된 데이터 손실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동기화됩니다. 모든 사고는 장치에서 클라우드로의 DLP를 위한 단일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면서 McAfee ePO 소프트웨어로 전달됩니다.

기업에서 장치-클라우드 간 DLP를 이용하여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

McAfee eP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은 가능한 한 쉽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DLP를 적용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통합의 장점을 누려왔습니다. 예를 들어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파일 공유에 McAfee DLP를 사용하는 대규모 음식 서비스 제조업체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알아내야 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했습니다. 이 회사는 McAfee® Web Gateway로 시작해서 최종 사용자 대상과 클라우드 내 회사 데이터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웹 트래픽을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 데이터의 대부분이 사실상 Microsoft Office 365에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.

클라우드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이 회사의 요구사항은 온-프레미스와 비교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클라우드에서의 파일 공유 및 협력과 같은 컨텍스트 차이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.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온-프레미스 검색과 유사하게 필요에 따라 Office 365에서 자사데이터를 검색할 필요가 있었으며 클라우드에 고유하며 네트워크 가시성을 넘어서야 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Office 365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DLP 규칙을 적용해야 했습니다. 이 회사에서는 클라우드 접근 보안 브로커(CASB)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데 있어 최고의 솔루션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시장의 여러 제품을 평가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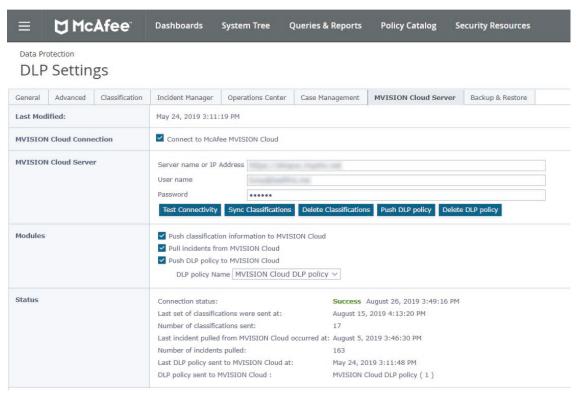


그림 1. McAfee ePO 소프트웨어에서 MVISION Cloud로 DLP 정책 동기화

결과적으로 McAfee ePO 소프트웨어에서 기존 DLP 규칙으로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MVISION Cloud를 도입했습니다. 사내 보안팀에서는 McAfee ePO 소프트웨어로 시작해 온-프레미스 데이터 분류를 MVISION Cloud로 옮겼으며 사전에 작성된 분류를 이용하여 Office 365에 관한 정책을 작성했습니다. 현재 이 회사는 단일 위치에서 McAfee

데이터 시트

Web Gateway의 웹 트래픽 보고와 함께 데이터 분류 및 장치와 클라우드의 DLP 사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McAfee ePO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집니다.

"데이터의 이동 방향, 접근한 사용자에 관한 가시성은 물론,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관된 위험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McAfee MVISION Cloud를 CASB로 선택했습니다."

-글로벌 IoT 제조업체 CISO

중앙 집중식 사고 관리 및 보고

McAfee ePO 소프트웨어로 단일창 환경에서 모든 DLP 위반을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. DLP 위반이 회사 장치에서 발생하든 클라우드 응용프로그램에서 발생하든 관계없이 콘솔을 전환하지 않고 사고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중앙 집중식 콘솔은 여러 환경에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감사 및 규제 준수와 관련된 복잡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

요약

매일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가운데, 회사 엔드포인트, 관리되지 않는 장치, 네트워크 또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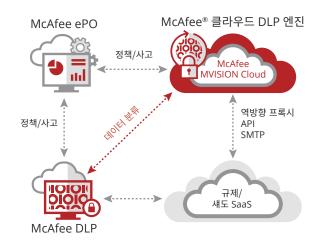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 McAfee 장치-클라우드 간 DLP 사고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아키텍처

클라우드 응용프로그램을 막론하고 모든 누출 벡터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일관된 DLP 정책을 유지하는 일이 이전 어느때 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.

McAfee 장치-클라우드 간 DLP는 다양한 환경에서 원활하고 통합된 데이터 보호 환경을 제공하여 운영 효율 향상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데이터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자세히 알아보기

자세한 내용은 mcafee.com/ dataprote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. 일관된 McAfee 내부 연구소 테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.



McAfee (Singapore) Pte Ltd 10 Kallang Avenue #08-10 Aperia Tower 2 Singapore 339510 www.mcafee.com/kr McAfee 및 McAfee 로고, ePolicy Orchestrator 및 McAfee ePO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McAfee, LLC 또는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. 기타 이름 및브랜드는 각 소유자의 재산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. Copyright © 2019 McAfee, LLC. 4352_0819 2019년 8월